

SM, Nippon 화재로 40달러 폭등!

FOB Korea 730-735달러 형성 ... Mitsui 플랜트 가동 무기한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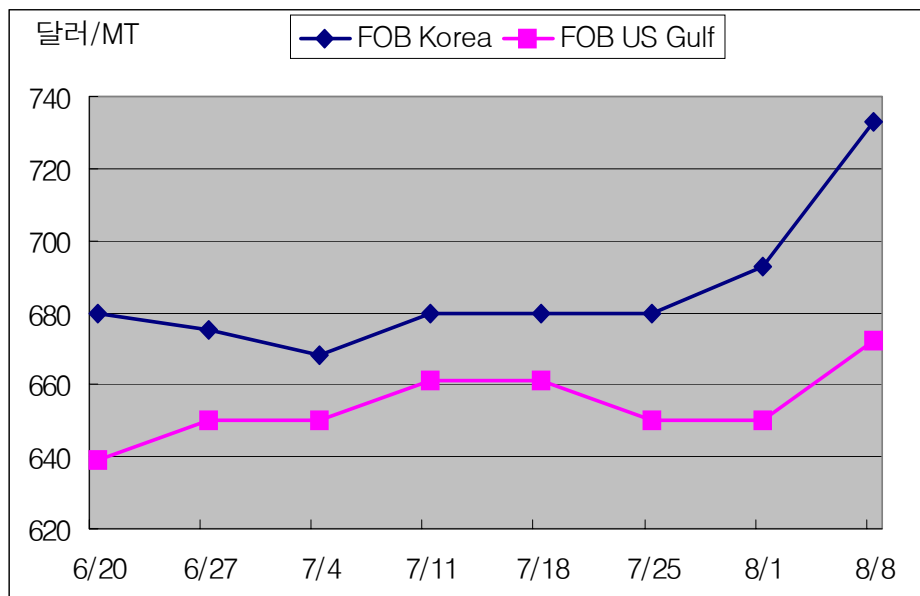
SM 가격은 8월8일 FOB Korea 톤당 730-735달러로 40달러 폭등했다.

일본 Nippon Oil의 Mizushima 정제 플랜트에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Naphtha 크래커 가동에 차질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Mitsubishi Chemical도 영향을 받아 SM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파악된다.

METI가 Mitsui의 2000-03년 플랜트 보수기록 관련 조작행위를 발견함에 따라 Mitsui의 Osaka 플랜트의 가동이 무기한 중단될 예정이며, China 소재 SM 플랜트도 가동중단에 위기에 놓여 있어 SM 시장여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METI는 조사대상에 Asahi, Denka, Mitsubishi 및 Sumitomo를 추가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주초에 SM 8-9월 거래물량의 가격은 FOB Korea 톤당 690-700달러대를 형성했으며 목요일에는 8월 하순 거래물량이 720달러에 거래됐다. 금요일에는 SM 가격이 730달러까지 상승했으며 중국에서는 주초 거래가격이 CFR 톤당 700달러를 형성했다.

SM 가격추이



한편, 미국의 SM 가격은 FOB US Gulf 파운드당 29.5-31.5센트로 톤당 평균 672달러를 기록해 22달러 상승했다.

<Chemical Journal 2003/08/13>